

2021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⑤	2	②	3	④	4	⑤	5	③
6	④	7	⑤	8	①	9	⑤	10	②
11	④	12	①	13	④	14	③	15	②
16	③	17	⑤	18	③	19	②	20	③
21	①	22	③	23	⑤	24	⑤	25	④
26	⑤	27	①	28	①	29	⑤	30	③
31	②	32	④	33	①	34	⑤	35	③
36	②	37	④	38	①	39	④	40	④
41	②	42	①	43	③	44	④	45	②

해설

1. [출제의도] 발표의 구성과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발표자는 자율 동아리를 소개하면서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고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앞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다시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 동아리 가입에 관심이 생긴 친구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는 ‘오토마타’의 의미를 밝히면서 청중에게 해당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② 발표자는 자율 동아리를 소개하고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이 동아리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이 동아리에 가입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발표자는 발표 도중 ‘두 팔을 교차해 가위표를 만’들거나 ‘엄지를 치켜’드는 행동을 함으로써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④ 발표자는 발표를 시작할 때 청중에게 ‘어떤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셨나요?’와 같이 질문을 던지면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2. [출제의도] 발표의 자료 활용 방식을 파악한다.

㉠은 청중이 초등학교 때 만들 만한 것으로, 청중의 과거 경험을 환기시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활용되었다. ㉡은 작년 ‘오토마타 경진대회’에 나온 작품들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 동아리에서 목표로 하는 작품의 수준을 알려주기 위해 활용되었다.

[오답풀이] ① ㉠은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는 데 활용되고 있지만, ㉡의 경우 동아리 활동의 주의 사항을 알려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③ ㉠은 이 동아리 활동에서 만들고자 하는 결과물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④ ㉠은 이 동아리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아리 활동의 준비물이 아니다. ⑤ ㉠을 보여주며 ‘크랭크, 기어, 캠’ 같은 부품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품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3. [출제의도] 청중의 듣기 과정이나 반응을 파악한다.

‘학생 1’과 ‘학생 3’은 이 동아리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따져보고 있다. 그러나 두 학생 모두 발표자가 말한 내용이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근거가 함께 제시되었는지를 따져 보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발표에서 알게 된 정보와 관련 지어 자신의 일정을 확인하고 있다. 학생은 이 정보가 자신의 동아리 가입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라고 판단하였다. ② ‘학생 2’는 ‘오토마타 동아리에 들어오면 코딩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발표자의 말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③ ‘학생 3’은 동아리의 장점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⑤ ‘학생 2’는 자

신에게 오토마타 동아리보다 더 도움이 되는 동아리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 3’은 이 동아리의 활동이 자신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수집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4. [출제의도] 답화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다.

학생은 학예사의 설명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밝히거나 추가 질문을 하고 있으나,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학생은 인터뷰의 서두에서 ‘조선 왕릉과 관련하여 장묘 전통, 공간 구성, 석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② 학생은 ‘조선 왕릉은 진입 공간, 제향 공간, 능침 공간으로 구분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공간 구성의 독창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③ 학생은 학예사의 설명에 대해 ‘조선 왕릉은 공간에 따라 조망 범위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공간의 위계를 조성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해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있다. ④ 조선 왕릉은 ‘자연 친화적 성격’이 돋보인다는 학예사의 설명에 대해, 학생은 ‘건원릉이나 광릉’에 갔을 때의 경험을 밝히고, ‘이곳 선릉도 자연 친화적 공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며 학예사의 설명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5. [출제의도] 답화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B]에서 학예사는 ‘석물의 예술적 가치가 높다’는 자신의 말에 대해 더 설명해 달라는 학생의 요청을 받아들이어 석물의 예술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B]에서 학생은 학예사의 답변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여 설명을 요청하고 있으나, [A]의 학생 질문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B]에서 학생은 학예사의 설명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학예사가 답변에서 제시한 사례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은 [A]나 [B]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학예사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B]에서 석물의 예술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A]에서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B]에서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 ⑤ 학예사가 [A]의 설명에 대한 학생의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밝히는 내용은 [A]나 [B]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B]에서 학생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설명한다는 내용도 나타나 있지 않다.

6. [출제의도] 글에 활용된 글쓰기 계획을 파악한다.

1문단에 조선 왕릉은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 주는 왕릉 조성과 기록 문화, 조상 숭배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살아 있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ㄱ). 2문단에 조선 왕릉은 ‘지면의 높이 차이를 만들고 정자각의 배치를 활용하여 제향 공간과 능침 공간의 조망 범위를 다르게 함으로써 공간의 위계를 조성’하였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ㄴ). 4문단에 『국장도감의례』, 『산릉도감의례』, 『종묘에서 정례적으로 봉행되는 제례 의식’이 기록 문화와 제례 의식과 관련된 사례로 제시되어 있다(ㄷ).

[오답풀이] 2문단에 조선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왕릉을 조성하는 자연 친화적 원칙’을 지켜 왔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나,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이 조선의 고유한 장묘 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은 초고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ㄴ).

7. [출제의도] 글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을 파악한다.

[C]는 능침 공간이 왕의 공간인 상계, 신하의 공간인 중계와 하계로 영역이 나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계에 병풍석, 난간석, 혼유석, 양 석상과 호랑이 석상 등이 배치되고, 중계에 장명등, 문신 형상

의 석인상, 석마 등이 배치되고, 하계에는 무신 형상의 석인상, 석마 등이 배치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각 석물에 대해서는 외적 특징이나 상징적 의미 등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오답풀이] ① [C]는 능침 공간에 배치된 석물의 외적 특징이나 상징적 의미 등을 설명하고 있으나, 석물의 예술미에 대해 분석하거나 왕릉들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② [C]는 능침 공간에 배치된 석물을 통해 조선의 내세관과 문치주의를 표방했던 조선 왕조의 지향이 드러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석물과 관련한 평가를 소개하고, 각 평가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③ [C]는 능침 공간에 배치된 석물의 외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석물의 형태 변화 양상을 설명하거나 시기별로 나누어 특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④ [C]는 능침 공간에 배치된 석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각 석물에 대한 설명을 인용하고 그러한 설명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8. [출제의도] 작문 상황을 고려한 글쓰기 계획을 파악한다.

㉠을 고려하여 (나)의 2문단에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한 맛있는 채소류 음식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언급하였으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② ㉠을 고려하여 2문단에 학생들이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채소류 음식을 즐기게 되면 몸이 건강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③ ㉠을 고려하여 2문단에 급식 시간에 관찰한 학생들의 식습관과 잔반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채식하는 날’을 도입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④ ㉠을 고려하여 1문단에 ‘채식하는 날’이 도입되면 매주 월요일에 육류, 계란 등을 제외한 식단을 제공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있다. ⑤ ㉠을 고려하여 3문단에 육류 소비를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9. [출제의도] 초고 수정을 위한 자료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

ㄴ은 ‘채식하는 날’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여 지구의 기후 위기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공공 기관의 사례이며, ㄷ은 축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비율이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 자료이다. 3문단은 ‘채식하는 날’을 도입하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기후 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므로, ㄴ과 ㄷ을 3문단과 관련하여 초고를 보완할 때 ‘채식하는 날’의 도입이 기후 위기를 막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제도의 변화보다 개인의 노력이 더욱 중요함을 드러내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ㄱ은 육류의 과도한 섭취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전문 서적 자료이므로, 2문단에 추가하여 채식이 개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글의 신뢰성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ㄴ에는 ‘채식하는 날’과 유사한 제도에 참여하여 건강과 식습관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2문단에 추가하여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ㄴ은 ‘채식하는 날’과 유사한 제도가 환경 문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수치화한 자료이므로, 3문단에 추가하여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ㄷ은 축산 분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강조하는 그래프이므로, 3문단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고쳐쓰기를 위해 떠올린 생각을 파악한다.

<보기>에서는 ‘채식하는 날’과 ‘학교 급식’이,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골고루 제공해야 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초고를 수정한다면, ‘채식하는 날’이 학생들의 육류 음식 위주로 먹지 못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소류 음식의 섭취 기회를 늘려 보다 균형 있게 영양소를 섭취하게 하는 데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육류 음식보다 채소류 음식이 학생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은 <보기>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며 (나)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③ 채소류 음식만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은 <보기>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며 (나)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④ 육류만 편식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은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과 관련이 있으나, 학교 급식의 간판 중 채소류가 차지하는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보기>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⑤ 채소류 위주의 식습관 형성이 건강 증진과 기후 위기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은 (나)의 주장과 일치하나, <보기>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11. [출제의도] 단모음과 이중 모음에 대해 이해한다.

‘나’는 이중 모음으로 반모음 ‘[w]’가 단모음 ‘ㅏ’ 앞에서 결합한 소리이다.

[오답풀이] ① ‘ㅠ’는 이중 모음으로,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한 소리이다. 이중 모음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 도중에 변한다. ② ‘히’는 단모음으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③ ‘케’의 발음은 ‘ㅣ’를 짧게 발음하는 것과 유사한 소리인 반모음 ‘[j]’ 뒤에서 ‘ㅌ’가 결합한 것이다. ⑤ 반모음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소리이고 이중모음의 발음은 반모음이 단모음과 결합한 것이다.

12. [출제의도] 표준어 규정에 따른 발음을 이해한다.

‘표준어 규정’에 따르면 ‘ㅅ’과 ‘ㄱ’은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ㅅ’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w]와 ‘ㄱ’ 소리를 연속하여 발음하며 이 소리는 ‘ㄱ’의 발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에 들어갈 발음으로 적절한 것은 [차웨]이다. ‘ㄱ’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w]와 ‘ㅣ’ 소리를 연속하여 발음하며 이 소리는 [ㅈ, ㅊ, ㅋ, ㆁ, ㄷ, ㄲ, ㅌ, ㄴ]의 발음 중에 없으므로 ㉡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을 파악한다.

㉔은 ‘날이 추워지다.’와 ‘방한 용품이 필요하다.’가 연결 어미 ‘-면’을 통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연결 어미 ‘-면’은 ‘날이 추워지다.’가 ‘방한 용품이 필요하다.’의 조건임을 나타낸다.

[오답풀이] ① ㉠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가 명사절로서 안은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은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가 서술절로서 안은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은 ‘그가 우리를 도와 준’이 관형절로서 안은문장에서 명사 ‘일’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⑤ ㉤은 ‘관객들이’가 주어이고 ‘매웠다’가 서술어인,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14. [출제의도] 사전 활용의 적절성을 이해한다.

㉠은 ‘주다’의 높임말로 ‘드리다’[1]의 의미이고, ‘할
머니께 말씀을 드리다.’의 ‘드리다’는 ‘윗사람에게 그
사람을 높여 말을 하다’인 ‘드리다’[2]의 의미로 사용
되었다.

【오답풀이】 ① ㉠은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게 하다.’의 의미로 ㉡이 포함된 문장은 ‘들이다’[1]의 용례라고 할 수 있다. ② ㉠은 ‘들이다’[1]의 의미인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게 하거나 오게 하다.’에 해당하므로 <보기 1>에 제시된 ‘들이

다[1]의 문형 정보 [...을 ...에]를 참고하면 ㉠이 포함된 문장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목적어 ‘우리를’을 추가하여 문장을 수정하였다. ④ ㉡은 ‘들이다’[2]의 의미인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를 쓰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들여’라고 고쳐 써야 한다. ⑤ <보기 1>에 제시된 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드리다’와 ‘들이다’는 다의어이다. 따라서 ㉠과 ㉡의 의미는 사전의 표제어 아래 제시된 여러 뜻풀이 중 하나에 해당된다.

15. [출제의도]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이해한다.

훈민정음의 조성 중에서 이[齒]의 모양을 본뜬 기본자는 잇소리 ‘ㅅ’이며, 여기에 ‘가획’의 원리에 따라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는 가획자 ‘ㅆ, ㅅ, ㅅ’이다. 중성 중에서 초출자 ‘ㄱ’에 기본자 ‘ㅅ’를 결합하여 만든 글자는 재출자 ‘ㄱ’이다. ‘상형’이나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만든 이체자는 ‘ㅇ, ㄹ, ㅁ’이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글자는 ‘쫄’이다.

[16~20] (인문) 김태희, 「한국 주자학과 실학에서의 민(民) 개념」

이 글은 조선 시대 통치 기조인 민본 사상과 관련하여 조선 학자들이 제시한 백성에 대한 관점을 설명한 글이다. 정도전은 백성을 보살피는 군주의 덕성과 관료의 자질 향상을 강조했다. 이이는 백성의 교화와 민생 안정을 강조한 한편 군주가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외민의 태도를 따라 백성의 신망을 얻고자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약용은 사회적 약자에 속한 백성을 적극 보살필 것과 백성이 자신의 경제적 처지에 따라 통치 체제 유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논했다. 이러한 논의는 조선의 통치 계층이 백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바탕이 되었다.

16.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이 글은 정도전, 이이, 정약용 등 조선 시대 학자들의 주장에 나타난 백성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3문단에 정도전과 이이의 관점 모두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이라고 본 점이 상통한다고 하여 백성에 대한 관점의 공통점을 제시했다. 또한 이이가 군주가 지녀야 할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한 부분은 정도전의 관점과 다르다고 제시했다. 4문단에서 정약용의 논의가 백성이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보는 관점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앞서 제시한 백성에 대한 관점과의 공통점을 짚고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조선 시대 관료 조직의 위 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나 이를 분석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4문단에서 대민의 납세 부담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나 조세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④ 2~4문단에 제시된 군주의 역할에 대해 논의를 통치관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적 서술은 드러나지 않았다. ⑤ 4문단에서 조선 후기 상·공업 발달 상황을 언급했으나 상업의 발달을 통시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다.

17.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3문단에 의하면 ‘외민’은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며, 이 두려움은 백성이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다고 여기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오답풀이] ① ‘외민’은 백성이 아닌 군주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다. ② 해당 진술은 2문단에 제시된 ‘감사 기능’에 대한 내용이나 3문단의 ‘외민’에 대한 설명과는 무관하다. ③ 1문단과 3문단에 의하면 군주와 백성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비유한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태도인 ‘애민’에 근거한 것으로 백성을 두려워하는 태도인 ‘외민’을 근거로 삼았다고 할 수 없다. ④ 1문단에 제시된 민본 사상이 추구하는 백성의 모습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외민’을 의미하지 않는다.

1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은 백성들에게 면포를 거둘 때 수령이 주도하여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서 구입하도록 하여 납부하게 하면 백성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관료가 백성에게 봉사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고 백성의 경제적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민본 사상의 관점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③에서 진술한 것처럼 경제적 처지에 따라 대민과 소민으로 백성을 구분하여 납세 부담을 지운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ㄱ의 ‘독봉을 나누어 준 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부분은 독봉이 봉사자로서 얻는 것이라는 2문단의 주장과 관련된다. ② ㄴ은 왕이 먼저 대궐 안의 물품들을 줄여 쓰고 진상을 줄여 나갈 것을 제안한 점에서, 1문단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백성을 보살피는 시각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④ ㄱ에서 ‘관리’가 ‘백성’에 ‘근본’을 둘 것을, ㄷ에서 ‘군포’를 거둘 때 백성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을 언급한 것에서, 2문단에 제시된 민본 사상을 실현하는 관료의 면모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⑤ ㄴ과 ㄷ의 백성의 ‘혜택’이 경제적 혜택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3문단에 제시된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제안된 방안이라 볼 수 있다.

19. [출제의도] 글의 관점을 다른 글과 비교한다.

<자료>는 조선 시대의 교육이 통치 계층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으며, 백성에 대한 교육이 도덕적 교화에 한정되었다는 내용으로, 조선 시대의 교육이 본질적으로 통치 계층을 위한 것이었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A]에는 조선 시대 교육 제도가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관점이 드러난다.

[오답풀이] ① <자료>와 [A]는 모두 조선 시대 정책을 화제로 삼은 글로 교육 기회에 대한 백성의 노력을 화제로 다루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정리할 수 없다. ③ <자료>와 [A] 모두 교육 방식이나 현대적 계승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지 않아 관점의 차이를 찾을 수 없다. ④ <자료>에 조선 시대 교육이 신분 질서 유지에 기여했다는 내용이 나올 뿐 그 의미는 제시되지 않고, [A]에서는 신분 질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관점의 차이를 정리할 수 없다. ⑤ <자료>에 백성의 정치 참여가 제한되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참여한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고 [A]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드러난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20.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㉔ ‘순조롭게’는 ‘일이 아무 탈이나 말썽 없이 예정대로 잘되어 가게’를 뜻하므로, 의미상 ‘끊임없이’로 바뀌 쓸 수 없는 단어이다. 문맥상 ‘잘되어 가게’로 바뀌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순응해야’는 ‘환경이나 변화에 잘 적응하여 따라’라는 뜻이므로 문맥상 ‘따라야’로 바꿀 수 있다. ② ‘정비하는’은 ‘정돈하여 제대로 갖추는’이란 뜻이므로 문맥을 고려해 ‘가다듬는’으로 바꿀 수 있다. ④ ‘부합하는’은 ‘사물이나 현상이 꼭 들어맞는’이란 뜻이므로 문맥상 ‘걸맞은’으로 바꿀 수 있다. ⑤ ‘기반한’은 ‘기초가 될 만한 바탕이 되는’이란 뜻이므로 문맥상 ‘바탕을 둔’이라고 바꿔 쓸 수 있다.

[21 ~ 25] (사회) 정하중, 「행정법총론」

이 글은 손실 보상 청구권을 설명하고 있다. 손실 보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인 특별한 희생과 재산권의 사회적 한계 사이의 구별에 대해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경계 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고 본다. 반면 분리 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구별된다고 본다. 사회적 한계를 넘어 개인의 재

산권을 침해하는 행정 작용에 대해 보상 규정이 없을 때, 경계 이론은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보지만, 분리 이론은 제2항을 근거로, 위법한 행정 작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21.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3문단을 보면,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점, 보장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써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다.

[오답풀이] ② 공용 침해 중 사용의 경우 재산권은 국가로 이전되지 않는다. ③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 작용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④ 법률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용 침해와 손실 보상이 내용상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⑤ 행정 기관이 사설 연수원을 일정 기간 동원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용 침해 중 ‘사용’에 해당한다.

22.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비교하여 이해한다.

3문단을 보면,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4문단을 보면, ㉠은 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뀌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특별한 희생에까지 이르지 않는 행정 작용의 경우, ㉠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은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행정 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은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고 본다. ④ 손실 보상 청구권 성립 요건인 특별한 희생의 발생 여부에 대해 ㉠은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은 입법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보상 없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대해, ㉠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은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본다.

23. [출제의도] 글에 생략된 내용을 파악한다.

5문단을 보면, 분리 이론은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입법자가 이를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다는 점,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더라도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헌법에 위반되고, 이때의 행정 작용은 위법하다고 본다는 점, 재산권 존속이 손실 보상보다 우선한다고 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에 근거해 분리 이론은 손실 보상 대신 위법한 행정 작용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입법자가 법률로써 보상을 규정하지 않는 한, 재산권은 보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닌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본다는 점이 전제돼 있다.

[오답풀이] ① 분리 이론은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의 재산권 침해는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고,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본다. ② 헌법에 따라 공용 침해 규정과 손실 보상 규정은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③ 분리 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본다. ④ 분리 이론은 행정 작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면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본다.

24. [출제의도] 글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보기>를 통해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손실을 취했다는 점, A 법률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에 대한 보상은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5문단을 보면, 분리 이론은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보지만, 분리 이론은 제2항을 근거로, 위법한 행정 작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오답풀이] 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행위가, 헌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였을 것이다. ② 개발 제한 구역 지정 행위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규정인 헌법 제23조 제3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③ 토지 재산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A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토지의 공공성을 근거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④ 개발 제한 구역 지정 행위가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발생시킨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개인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25. [출제의도] 문맥상 의미를 파악한다.

경계 이론이 별개가 아니라 단지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이다. 그러므로 ㉠은 문맥상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공적 부담의 평등이란 행정 작용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공공이 분담하기 위한 것이다. ② 공용 침해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이다 ③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된 재산권의 한계이다. ⑤ 분리 이론은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전혀 다른 의사가 규정된 것이라고 본다.

[26 ~ 30] (과학) Raymond A. Serway 외, 「일반물리학」

이 글은 핵분열과 핵융합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활용한 발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핵분열은 질량수가 큰 하나의 원자핵이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것이고, 핵융합은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핵이 질량수가 큰 하나의 원자핵이 되는 것으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작은 상태에서 큰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핵분열과 핵융합의 과정에서 줄어드는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 에너지를 핵분열 발전과 핵융합 발전에 활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6.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2문단에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이 될 때 줄어드는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 에너지는 원자핵을 개별 핵자들로 분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인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와 그 크기가 같다고 언급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질량수는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모두 더한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② 8문단에 양(+)의 전하를 띤 원자핵은 음(-)의 전하를 띤 전자와 전기적 인력에 의해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③ 2문단에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④ 2문단에 ‘질량 -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르면 에너지는 질량에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과 같다.

27.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파악한다.

핵분열 발전을 할 때는 우라늄 - 235 원자핵에 전자가 아닌 중성자를 흡수시켜 핵분열을 일으킨다.

[오답풀이] ② 중성자가 느리게 움직일 때 원자핵에 흡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이나 흑연을 감속제로 사용하여 중성자의 속도를 조절한다. ③ 연쇄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나면 과도한 에너지가 발생하여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어봉으로 중성자를 흡수하

여 급격한 연쇄 반응을 막는다. ④ 핵분열은 질량수가 큰 하나의 원자핵이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라늄 - 235 원자핵이 분열되면 우라늄 - 235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들로 나뉘게 된다. ⑤ 우라늄 - 235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방출되는 중성자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야 다른 원자핵에 흡수될 확률이 높아져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28. [출제의도] 글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연관 지어 이해한다.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원자핵이 더 안정된 상태이고 모든 원자핵은 안정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작은 원자핵들은 핵분열이나 핵융합을 거쳐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크고 안정된 상태가 된다. <보기>에서 철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은 핵융합을 통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큰 원자핵이 된다고 했고, 헬륨 - 4 원자핵은 철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낮으므로 헬륨 - 4 원자핵이 핵융합을 거치면 더 안정된 상태의 원자핵으로 변한다.

[오답풀이] ② <보기>의 그림을 보면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은 양성자의 수가 1개로 동일하다. 하지만 삼중수소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더 높으므로 삼중수소 원자핵이 중수소 원자핵보다 더 안정된 상태이다. ③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이다. 철 원자핵의 질량수는 56이므로 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철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에 56을 곱한 값과 같다. ④ <보기>에서 철 원자핵은 모든 원자핵 중에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다고 했으므로 우라늄 - 235 원자핵의 핵분열로 생성된 원자핵들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철 원자핵보다 작아야 한다. 철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9MeV 이하이므로 우라늄 - 235 원자핵의 핵분열로 생성된 원자핵들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9MeV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것이다. ⑤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들은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다. 우라늄 - 235 원자핵은 철 원자핵에 비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작으므로 철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들이 우라늄 - 235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들보다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다.

29.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지구는 태양과 물리적 조건이 달과 수소 원자핵을 원료로 하는 태양의 핵융합을 똑같이 재현할 수 없고 물리적 조건을 동일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태양과 달리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을 사용한다.

[오답풀이] ① ㉠은 여러 핵융합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헬륨 - 4 원자핵이 생성된다. 따라서 헬륨 - 4 원자핵의 개수는 늘어난다. ② 태양의 핵융합을 똑같이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는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을 원료로 사용한다. ③ ㉢에서는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 - 4 원자핵이 된다. 이와 달리 ㉠에서는 두 개의 헬륨 - 3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 - 4 원자핵이 된다. ④ ㉠과 ㉡는 모두 핵융합이고 핵융합은 반응 전후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줄어드는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된다.

30.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의 이유를 추론한다.

원자핵은 양의 전하를 띠고 있어 가까이 다가갈수록 척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척력을 이겨내고 원자핵이 융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플라스마 온도를 1억 ℃ 이상으로 높여 원자핵을 고속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원자핵이 융합로의 벽에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장을 활용한다. ② 자기장을 발생시켜 플라스마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플라스마를 1억 ℃ 이상으로 가열한 후의 과정이다. ④ 플라스마를 1억 ℃ 이상으로 가열하는 것은 전자가 아니라

원자핵을 고속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다. ⑤ 원자핵은 양의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원자핵들 사이에는 전기적 인력이 아닌 척력이 존재한다.

[31 ~ 33] (현대시) (가) 김광균, 「성호부근」/(나) 이성선, 「논두렁에 서서」

(가) 김광균, 「성호부근」

이 글은 겨울 호수 부근의 풍경을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형상화한 시이다. 이 시는 얼음이 빙나는 겨울 호수 부근을 한 사람이 홀로 걷고 있는 장면, 강물이 ‘얼어붙’고 노을이 지는 장면, ‘투명한’ 하늘 밑 ‘논둑 위에’ 송아지 ‘한마리’가 서 있는 장면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여 애상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나) 이성선, 「논두렁에 서서」

이 글은 ‘논고랑에 고인 물’을 보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존재들의 관계와 의미를 돌아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시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물 속에 비친 ‘거꾸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프지 않다’고 인식하고, 물에 비친 ‘늘 떨며 우왕좌왕하던’ 자신의 모습을 ‘무심하고 아주 선명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31. [출제의도] 두 작품의 특징을 파악한다.

(가)에서는 ‘스며든다’, ‘서 있다’와 같이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겨울 호수의 쓸쓸한 풍경과 같은 시적 상황에 주목하게 한다. (나)에서는 ‘본다’, ‘행복해진다’, ‘함께 있다’, ‘아름답다’, ‘선명하다’ 등과 같이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물을 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과 화자가 인식한 변화 등과 같은 시적 상황에 주목하게 한다.

[오답풀이] ① (가), (나)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 (나)는 청자와 대화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나)에는 ‘고인 물’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지만,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다. ⑤ (가)에서는 시어 ‘노을’이 반복되지만 이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2. [출제의도] 이미지를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2’에서는 노을을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는 ‘향수’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같은 애상적 정서가 환기된다. 한편 ‘3’에서 ‘송아지’는 ‘서글픈 얼굴’을 하고 있어 애상적 정서를 환기한다. 하지만 ‘송아지’를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는 것과 연결 지어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 시에서는 애상적 정서가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암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양철 같은 달’이 비치는 호수를 ‘한포기 화려한 꽃밭’에, ‘웃소매에 스며’드는 ‘얼음소리’를 ‘날카로운 호적’에 비유하면서, 날카롭고 차가운 감각을 드러내 겨울 호수의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② 달이 뜬 밤 호숫가를 ‘홀로’ 거닐고 있는 모습에서 쓸쓸한 정서가 드러난다. ③ ‘얼어붙’은 강물의 모습과 노을이 지는 모습을 각각 ‘낡은 고향의 허리띠’, ‘희미한 날개를 펴는 향수’에 비유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시킨다. ⑤ 시의 각 장면에 제시된 ‘조각난 빙설’, ‘얼어붙’은 ‘강물’, ‘양상한 잡목림’은 스산한 분위기를 환기하면서 애상적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33. [출제의도] 내적 준거에 의해 작품을 감상한다.

화자는 자신의 모습이 물에 비치는 모습을 ‘거꾸로 서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산이 자신의 ‘결에 거꾸로 누워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여기서 ‘산’은 화자와 함께 ‘고인 물’에 비치는 존재이고, 산이 물에 거꾸로 비치는 모습이 ‘늘 떨며 우왕좌왕하던’ 과거 화자 자신의 모습을 동일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② ‘그들’이 물에 비치는 모습을 ‘높지도 낮지도 않’으며 아름다운 모습이라 표현한 것에서 물에 비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면모가 드러난다.

③ 물에 자신이 비치는 모습을 ‘거꾸로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며 이를 ‘아프지 않은 것’으로 표현한 것에서 물에 비치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④ 물에 비치는 ‘나뭇가지’, ‘햇살’, ‘새 그림자’와 ‘나의 얼굴’이 ‘함께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와’ 다른 존재들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⑤ 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무심하고 아주 선명하다’라고 표현한 것에서 자신의 모습을 예전과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 37] (현대 소설) 김애란, 「도도한 생활」

소설의 제목인 「도도한 생활」은 피아노 음계 ‘도’의 반복되는 소리와 피아노를 자유롭게 연주하며 살아가는 도도한 생활을 이중적으로 의미한다. 소설에서 부지런한 엄마는 열심히 만두 가게를 꾸려서 약간의 여유가 생기자 ‘보통’의 기준에 맞춰 살아 보고자 생각하게 되고, 이를 둘째딸인 ‘나’에게 피아노를 사 주는 것으로 실천한다. 피아노가 만두 가게와는 어울리지 않았고 ‘나’에게 특별히 음악적 재능이 있지도 않았지만, 엄마는 빗보증 때문에 가게가 망하게 된 상황에서서도 ‘기념비’처럼 피아노를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 엄마의 부탁으로, 성년이 된 ‘나’는 피아노를 갖고 서울 반지하방으로 옮겨온다. ‘나’는 언니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서울 생활을 버티고, 피아노는 습기와 곰팡이로 점점 망가져간다. 어느 날 폭우로 반지하방에 물이 차오르게 되는데, ‘나’는 피아노를 치지 말라는 집주인의 말을 어기고 피아노를 연주하며 나의 ‘도도한 생활’을 지키려고 한다. 이 소설은 2000년대를 살아가는 20대 젊은이의 현실을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34.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이해한다.

제시문에서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인 ‘나’가 엄마, 학원 선생님, 언니, 백인 남자, 외삼촌, 주인 남자 등 여러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며 자신의 생각과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피아노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이 제시되고 있는데 사건은 ‘나’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② 반지하방에 피아노를 들이는 일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갈등이 벌어지나, 서술자가 교체되며 갈등을 서술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의 시점에서 서술되지 않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인 ‘나’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 ④ 사건을 서술하는 ‘나’는 주요 인물로 사건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35.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말이다’는 앞서 한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거나 강조하는 표현으로, ㉞은 바로 앞의 문장인 ‘우리 가족은 생계와 주거를 한 건물에서 해결하고 있었다.’를 부연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 ㉞은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른다’와 같이 단정적이지 않고 추측과 짐작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성년이 된 서술자의 시각에서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다. ② ㉞은 피아노의 녁쿨무늬, 금속 페달, 레드 카펫 등 외양적 특징을 나열하여 ‘나’가 피아노에 대해 ‘학원에 있는 어떤 것보다 좋아 보였다’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④ ㉞은 반지하방에 놓이게 된 피아노를 ‘몰락한 러시아 귀족’에 빗대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㉞은 습표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피아노가 들어오는 상황에 대한 ‘집주인’의 불편한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적 내용을 파악한다.

유년 시절 만두 가게에서 ‘나’는 어설픈 연주에 박수를 보내주는 ‘백인 남자’와의 사이에서 ‘어정쩡한 침묵’을 겪고 부끄러운 감정을 느낀다. 백인 남자가 부

끄러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성년이 되어 언니가 사는 서울 반지하방으로 피아노를 옮기며 사람들이 언니, 나, 외삼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는 민망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

[오답풀이] ① 제시된 부분에서 ‘나’는 유년 시절을 만두 가게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보내다가, 아빠의 빗보증 때문에 가게가 망하면서 서울 반지하방에 사는 언니에게로 옮겨 간다. 이때 엄마의 부탁으로 피아노를 가져가게 된다. 이때부터 ‘나’는 만두 가게 그리고 엄마와 함께 지내던 시절을 끝내고, 반지하방 그리고 언니와 함께 지내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이 두 시절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피아노이다. ‘나’의 유년 시절, ‘파란 트럭’에 의해 피아노가 운반되어 왔을 때 ‘나’는 엄마가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그 피아노를 ‘외삼촌의 트럭’으로 서울 반지하방으로 옮길 때에는 언니가 뜨악한 표정을 지으며 당황해한다. ③ 유년 시절 우리 가족은 ‘생계와 주거를 한 건물 안에서 해결’하고 있었고, 성년이 된 ‘나’는 언니가 사는 서울 반지하방에서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살아가게 된다. ④ 만두 가게에서 ‘나’는 어설픈 실력으로 피아노를 연주했는데, 자신의 연주 실력에 대해 누구라도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을’ 만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지하방으로 피아노를 옮기다가 떨어트려 ‘쿵- 하는 소리’가 났을 때 ‘나’는 ‘그 사실적이고, 커다랗고, 노골적인 소리’에 얼굴을 붉히고 있다. ⑤ 만두 가게로 처음 피아노가 운반되어 왔을 때 ‘나’는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라며 기쁨을 드러낸다. 그러나 반지하방으로 피아노를 옮기게 되었을 땐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라며 ‘민망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를 참고하면 피아노는 엄마의 자존감을 상징하는 동시에 ‘나’에게 엄마가 마련해주고 싶어 했던 성장 환경을 의미한다.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나’는 서울 반지하방으로 옮겨가는데, 피아노를 운반하던 중 ‘쿵- 하는 소리’가 나고 녁쿨무늬 문양이 ‘사실은 본드로 붙여져 있던 것’이었음을 깨닫는 각성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나’의 욕구를 제한하는 사람은 서울 반지하방의 집주인으로, 그는 피아노를 절대 치지 말라는 조건을 내린다. 피아노가 ‘비상’하는 것은 피아노를 옮기기 위해 잠깐 들어올리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놀이공원에 가고, 엑스포에 가는 것’은 배움이 부족했던 엄마가 풍문에 따라 ‘나’에게 마련해주었던 ‘평범한 유년의 프로그램’이다. ② 엄마는 만두 가게에서 열심히 만두를 팔아 그 돈으로 ‘나’를 피아노 학원에 보내고 피아노를 사 준다. ③ 유년 시절 ‘나’는 피아노에서 ‘세련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나, 반지하방으로 피아노를 옮길 때에는 ‘민망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⑤ 유년 시절에는 ‘원목 위에 양각된 우아한 녁쿨무늬’라고 알고 있었는데, 반지하방으로 피아노를 옮기는 과정에서 ‘나’는 피아노의 녁쿨무늬가 떨어져 ‘고장 난 스프링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는 엄마가 ‘나’에게 마련해 주었던 환경이 그리 견고하지 못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38 ~ 41] (갈래 복합) (가) 이황, 「도산십이곡」/(나) 법정, 「인형과 인간」

(가) 이황, 「도산십이곡」

이 글은 퇴계 이황이 1565년 벼슬에서 물러나 향리로 돌아와 도산 서원에서 후학을 양성할 때 지은 12수로 된 연시조이다. 전6곡 언지(言志)는 자연에 묻혀 사는 뜻을 노래하고 후6곡 언학(言學)은 뜻을 이루기 위한 학문 정진을 노래하고 있다. 지문으로 제시한 부분은 후6곡 ‘언학(言學)’ 중 일부로, 성인이 남긴 학문의 길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나타난 부분이다.

(나) 법정, 「인형과 인간」

이 글은 법정의 수필집 『무소유』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로, 참된 인간은 인형처럼 수동적이지 않고 인간답게 적극적으로 학문을 배우고 그 배운 지식을 이웃과 함께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무학(無學)의 정신을 역설하고 있다.

38.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을 이해한다.

(가)의 화자는 ‘고인’이 남긴 학문의 길을 영원히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나)의 글쓴이는 진리에 대한 ‘성인’의 가르침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옛사람의 학문과 가르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 ‘고인’이 ‘가던 길’을 걷겠다는 화자의 다짐은, 가보지 않았던 길을 새롭게 가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당시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나)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찾을 수 없다. ③ (가)에는 ‘청산’과 ‘유수’의 연속성이 나타나지만, 이는 자연처럼 학문의 길을 끊임없이 걷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시키는 소재로만 활용되었을 뿐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예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에서는 찾을 수 없다. ④ (가)에는 ‘청산’과 ‘유수’를 보며 ‘만고상청’하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나오지만 이는 자연의 속성을 학문에 대한 다짐과 연관시켰을 뿐 물아일체의 삶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 (나)에서는 찾을 수 없다. ⑤ (나)에서는 실천 없는 지식인들의 무기력함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글쓴이의 인식을 발견할 수 있으나 (가)에서는 찾을 수 없다.

39.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다.

[B]의 ‘땀 데 마음 말으리’에서는 성인이 ‘가던 길’을 떠났던 자신의 지난 모습을 반성하는 자세라 볼 수 있지만, [A]의 ‘못 보고’와 ‘못 뵈네’는 종장의 ‘아니 가고 어찌할까’와 이어져 마땅히 ‘못 뵈’었던 ‘고인’을 ‘고인’이 가던 길(학문의 길)에서 만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A]의 초장에는 ‘고인도 날 못 보고’와 ‘나도 고인을 못 뵈네’가 대구를 이루며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B]에서는 ‘당시’에 가던 길(학문)을 버렸다가 ‘이제야’ 그 길로 돌아온다는 상황의 변화에서 화자가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다짐하는 기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A]에서는 ‘어찌할까’라는 설의법으로 화자의 다짐을, [B]에서는 ‘돌아왔는가’라는 의문형 어구로 과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A]에는 ‘초장(고인 못 뵈네) - 중장(고인을 못 뵈도)’과 ‘중장(가던 길 앞에 있네) - 종장(가던 길 앞에 있거든)’에서, [B]에는 ‘중장(이제야 돌아왔는고) - 종장(이제야 돌아왔으니)’에서 연쇄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의거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말의 갈래를 쪼개고 나누’는 태도와 ‘자신의 문제는 물어’ 두는 태도는 언행일치를 하지 않는 학자들의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세에 대한 설명이기에 두 소재는 대비가 아니라 유사한 관계로 보아야 한다.

[오답풀이] ① ‘나’와 ‘고인(옛 성인)’은 서로 만난 적이 없으나, ‘나’가 ‘고인’이 ‘가던 길(학문의 길)’을 걸음으로써 그 길을 걸었던 ‘고인’의 삶을 따르겠다는 ‘나’의 다짐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당시에 가던 길’은 학문의 길이고 ‘땀 데’는 학문의 길을 벗어난 것(벼슬길)을 의미하므로 두 소재의 관계는 대비가 된다. 또한 ‘이제야’ 다시 그 길만을 걷고 ‘땀 데’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학문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청산’과 ‘유수’의 연속성을 보며, 자신도 이와 같이 ‘만고상청’하며 끊임없이 학문의 길을

걷겠다는 화자의 다짐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능동적인 ‘사람’과 수동적인 ‘짐승’의 모습을 대비시키며, 배운 지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책임지는 인간으로 살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4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의거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무학(無學)’은 ‘많이 배웠으면서도 배운 자취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무학’의 의미를 바탕으로 <보기>의 ㉠을 설명한다면 ‘많이 배우고 배운 지식을 삶에서 실천한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이 부족하다거나 지식을 인격과 별개의 것으로 보는 태도는 무학의 조건과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배운 지식을 불필요한 이론에 가두어 놓고 현실에는 무관심한 것을 경계하고 있다. ③ 작품에서 이야기한 ‘무학’의 의미와 상통하는 태도이다. ④ 많은 배움을 통해 얻은 진리를 굳게 믿고 실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무학이 지식의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방법이다. ⑤ 배움을 지식이라는 울타리에 가두지 않는 자유로운 태도를 의미한다.

[42 ~ 45] (고전 소설) 작가 미상, 「토공전」

이 소설은 널리 알려진 ‘토끼전’을 한문으로 개작하는 과정에서 송사 설화의 모티프를 빌려, 새로운 이야기로 후반부를 구성한 ‘토공전’이다. 후반부의 중심 내용은 토끼를 놓친 것을 안 용왕이 옥황상제에게 글을 올려 토끼를 다시 수부 즉, 용궁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이에 옥황상제는 토끼와 용왕을 불러들여 각자의 진술을 들은 뒤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판소리게 소설로 널리 알려진 ‘토끼전’의 새로운 결말을 보여주는 ‘토공전’은, ‘토끼전’의 주제가 다양함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문 소설이 한문 소설로 개작되면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알려준다.

42. [출제의도] 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한다.

‘홀연히 한 때의 ~ 번갯불이 번쩍번쩍하더니’, ‘또 우레 소리가 울리고 번갯불이 번쩍번쩍하더니’에서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토끼는 ‘이는 필시 용왕의 조화야.’라고 짐작하고 있다. 토끼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를 옥황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토끼가 혼이 나가고 기운을 잃어 땅에 엎어졌다가 다시 깨어나 머리를 들고 보니 천상의 백옥경이었다.’에서 백옥경에 도착한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영문을 몰라 섬돌 아래에 기고 있’다는 부분에서 자신이 잡혀 온 이유를 알지 못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두세 치밖에 안 되는 혀로 만승의 임금의 유혹하여’에서 자신의 말솜씨에 대한 언급을 확인할 수 있고, ‘소장의 구변이나 양평의 지혜라도 이보다 낫지 못할 거야’에서는 자신의 말솜씨에 대한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용궁을 두루 구경하고 만수산으로 돌아왔으니’에서 토끼가 만수산에서 용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세가 태평하고 만사에 무심하여’에서 토끼가 느끼고 있는 만족감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용왕의 말이 귀에 들리는 듯하고 용궁의 경치가 눈앞에 삼삼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 채’에서 토끼는 용궁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출제의도] 인물의 진술을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A]에서 용왕은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러한 요청이나 제안을 스스로 문제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B]에서 용왕의 비위를 거슬렀기 때문에 삶을 구할 수 없다며 우려하는 토끼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옥황에게 ‘엎드려 요컨대 살피주소서’라고 요청하지만 그 제안이나 요청이 성공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사해의 우두머리로서 용왕이, 나라의 신을 섬기며 백성을 훈육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해 온 자신의 삶을 요약하여 제시하며 진술을 시작하고 있다. [B]에서 만수산에서 태어난 토끼는 출세함을 구하지 않고 백이와 도잡처럼 자신이 삶을 살아왔음을 요약하여 제시하며 진술을 시작하고 있다. ② [A]의 ‘몸의 위태로움이 바늘 방석에 앉은 듯하고’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용왕이 고난에 처했음을 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의 ‘절인 생선이 줄에 피인 듯하고 전상에서 호령하니 뜨거운 불바람이 부는 듯하니’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토끼가 고난에 처했음을 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A]의 ‘오늘 이렇게 다시 와 비오니 굵은 자가 밥을 얻은 듯하고 온갖 병이 다 나아 고목에 꽃이 핀 듯합니다’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는 용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B]의 ‘다시 위태로운 땅을 밟아 스스로 화를 받을 것을 알겠습니까’에서 토끼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걱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A]의 ‘가엾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에서, [B]의 ‘엎드려 비옵건대 살피주소서’에서 자신의 요구를 제시하며 진술을 마무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냥으면 늙고 늙으면 죽는 것은 인간의 일상적 일’이라는 옥황의 말은 판결에 대한 대전제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을 한 옥황은 결국 토끼의 편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옥황이 판결을 망설이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송사 설화 모티프는 갈등을 판결을 통해 해결하는 이야기를 말한다. 용왕과 토끼가 옥황 아래에서 재판받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송사 설화의 모티프를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용왕과 토끼가 옥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처분을 기다리는 모습에서, 두 인물이 옥황 앞에서 대등한 처지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공정한 처결을 하기를 바라는 일광노의 말에 따라 옥황은 토끼를 지지하는 판결을 한다. 이를 통해 일광노가 토끼를 지지함을 알 수 있는데, 강자보다는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인식은 토끼가 진술에서 밝힌 내용을 받아들인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토끼 역시 죽음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옥황의 판결에서, 용왕과 토끼가 모두 동일한 생명이라 생각하며 신분이 낮은 이의 생명과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서사적 기능을 파악한다.

[C]에서 용왕은 적혼공에게 토끼가 만수산에 가기 전에 포획해 오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뇌공에 의해 토끼가 순식간에 만수산으로 가게 되면서 용왕의 시도는 실패하게 된다. ‘하늘이 망해놓은 화’라는 용왕의 말은, 이것이 하늘의 명에 따라 일어난 일임을 드러내는 데, 이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C]에서 적혼공은 용왕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말을 할 뿐이다. 앞서 일어난 사건을 평가하고 있지 않다. ③ [C]에서 용왕은 옥황의 작용으로 토끼를 놓치고 탄식을 하고 있다. 용왕과 옥황의 지위는 천명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므로 통곡하고 돌아가는 이후 내용이 용왕과 옥황 간의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 ④ [C]에서 토끼는 뇌공에 의해 만수산으로 빠르게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통해 공간적 배경의 사실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⑤ [C]에서 용왕은 적혼공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따르려 했으나 뇌공에 의해 실패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다.